

충주 금릉동유적의 발굴과 의미

우종윤(충북대학교)

I. 유적의 위치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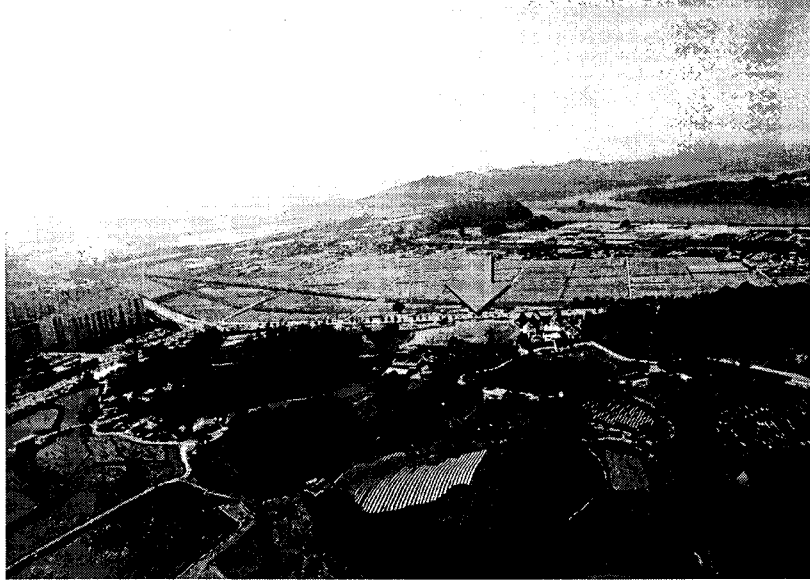
충주 금릉동유적은 충북 충주시 금릉동 277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남한강과 달천강이 합류하는 지점의 동쪽편으로 독립된 형태의 구릉(해발 51.5~64.3m)에 자리한다.

충주는 남한강의 물줄기가 백두대간에서 발원하여 북한강과 합류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강의 본류와 이에 합류하는 달천, 요도천, 봉황천 등의 유역에 단구층 및 층적대지가 잘 발달되어 있고, 이곳을 중심으로 일찍부터 사람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았음이 고고학적 조사로 확인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 일대에서 확인된 선사유적은 50여 지점에 이르며 비교적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II. 조사경위

이 유적은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1996년 남한강 및 달천강 일대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표조사 과정에서 처음 찾아졌으며, “충주 금릉동 유물산포지”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지표조사시 고토양층의 확인과 사냥돌·몸돌 등의 구석기유물이 수습되었고, 비교적 넓은 평탄면을 이루고 있는 구릉 정상부와 사면부에서 흙자귀와 흙자귀 제작과정에서 생산되는 격지·부스러기 등의 석기, 타날문토기편들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고토양층과 많은 청동기시대 석기제작 관련 유물의 분포에 주목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구석기문화 성격과 석기제작과정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하였던 곳이다.

이곳에 충주세무서에서 청사신축을 계획·추진하면서 문화유적 조사를 충북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함으로써 시굴조사(2004. 4. 8~4. 30) 및 발굴조사(2004.6.14~10.30)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최근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와 고고학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사지역 원경]



[조사지역 전경]

Ⅲ.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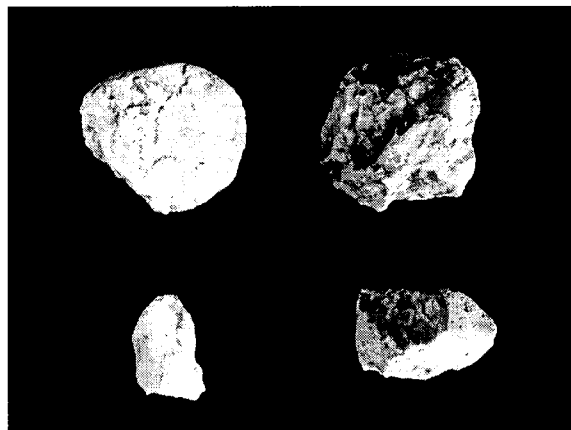
1. 금릉동 유적의 지형과 제4기 지질

충주 금릉동유적 일대는 남한강의 전형적인 범람원 지대에 해당하며, 남한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며 탄금대 주변에 넓은 범람원을 지나 탄금대 하류방향에서 북쪽방향으로 흘러 들어오는 달천과 합류하여 북서방향으로 흘러나간다.

이 일대에는 하안단구가 남한강을 따라 잘 발달해 있는데, 종래의 제2하안단구로 불리어 졌던 저위단구 I 면과 II 면이 발달하여 있는데, 유적 일대의 지역은 저위 I 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유적지 일대 중위면은 해발고도 약 95m보다 더 상부 구릉지 위에 발달하여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유적 주변에서 확인되는 사력층은 약 7만년전에서 약 5만년전에 형성되었으며, 이 위에 발달하는 적갈색내지 갈색, 암갈색 찰흙층은 최종빙기 동안에 형성된 지층으로 보인다. 한편, 토양썰기구조가 포함된 암갈색 찰흙층은 약 2만년 전·후의 시기에 발달한 퇴적층으로 판단된다.

금릉동유적 고도양층 발굴 지점의 대표층위는 상부로부터 명갈색 찰흙층(1층), 암갈색 찰흙층(2층), 수평엽상조직이 발달한 갈색 니사질층(3층), 갈색 사질층(4층), 사면기원(slopewash) 사력질 퇴적층 및 풍화토(5층), 편암과 편마암 및 조립질 화강암류의 기반암층(6층)으로 구분된다.



[고도양층 출토석기]

이 가운데 구석기유물 2층·3층의 2개층에서 확인되었으나 출토유물은 매우 빈약하며, 암질구성(석영 자갈돌)·석기유형도 매우 단순하다. 이들 퇴적층은 오히려 역사시대에 이르러 그 활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유구 조사

1) 유구분포현황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초기철기~조선시대에 이르는 211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매장유구이다. 이 중 원삼국시대의 유구가 72%(152기)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원삼국문화가 중심을 이루는 유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매장유구에서 확인되는 분포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초기철기시대 유구는 능선 정상부에서 경사가 둔화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향성으로 보면 동쪽편에 해당된다.

둘째, 가장 많은 수가 조사된 원삼국 유구는 능선 정상부의 평탄면과 사면이 길고 경사가 완만한 서사면부에 상대적 분포빈도가 높으나, 능선 사면 길이와 범위를 고려하여 보면 무덤조성에 특정방향, 특정부분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조성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원삼국 유구는 때를 이루며 분포하고 있으나 서로 중복된 유구가 없고, 주구가 마련된 유구도 전혀 없는 것이 한 특징을 이루며, 정상부의 평탄면에는 대형 토광묘와 합장묘가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넷째, 원삼국 유구의 조성은 능선 정상부에서 사면부로 내려가면서 일정한 구획성을 띠고 조성되어 있으며, 묘광 규모는 정상부로 갈수록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무덤축조의 계층성·공간성을 엿볼 수 있다.

다섯째, 고려시대 석곽묘는 동사면 말단부에 인접하여 조성되어 있으며, 조성수법·사용된 돌감·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거의 동시기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조선시대 유구는 능선 사면 중~하단부에 분포하고 있는데, 특히 경사가 매우 완만한 남사면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상부에는 조성하지 않았다.

조사된 유구의 분포현황과 시대·유구유형·유구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역	구분	구석기	초기철기	원삼국		삼국	고려	조선	계
				토광묘	옹관묘				
	능선 정상부		1	41	1				54
	능선 동사면부		1	14			2	10	23
	능선 서사면부	○		45				14	52
	능선 남사면부			29		1		28	58
	능선 북사면부			23				1	24
	계		2	153		1(석곽)	2(석곽)	53	211

2) 초기철기시대의 유구·유물

초기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는 2기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북쪽으로 치우친 동사면 중턱쯤에 흑도장경호가 출토된 세장한 형태의 토광묘(182×46×25cm)가 위치하고, 유적 동쪽으로 치우친 능선 정상부의 평탄면에서 원형점도대토기가 출토된 원형 수혈유구(178×172×43cm)가 조사되었다. 유물은 각각 흑도장경호와 원형점도대토기 1점씩만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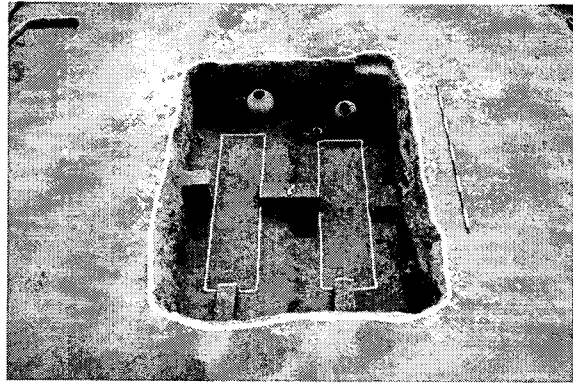
3) 원삼국시대의 유구·유물

금릉동유적의 중심이 되는 원삼국시대의 유구는 모두 매장유구로 152기가 조사되었다. 유구는 능선 정상부(42기)와 동(14기)·서(45기)·남(29기)·북사면(23기)을 따라 대체로 동고선방향과 평행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대체로 능선 정상부에 규모가 큰 묘광을 중심으로 사면을 따라 일정하게 열을 지으며 방사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무덤조성에 특정방향, 특정부분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조성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 묘광 및 매장주체시설의 형태

묘광의 평면형태는 대체로 말각장방형이 많은 편이고, 묘광 깊이는 중·대형 규모의 경우 깊은 편이다. 매장주체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목관을 사용하였는데, 목관의 형태는 □자형과 ㄱ자형으로 구분되며 유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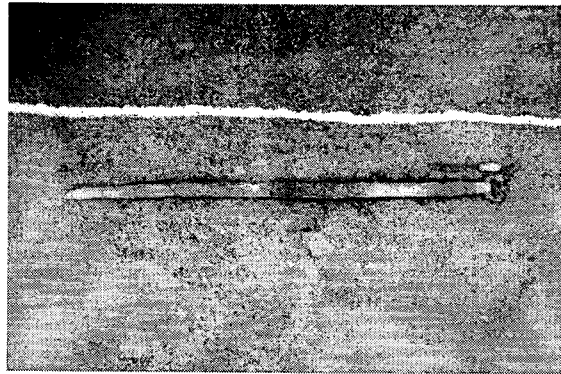
장칸을 별도로 마련한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묘광 바닥면에 관재가 남아 있는 것이 3기에서 확인되어(W-5호, W-7호, E-3호) 주목되며, 관재를 분석하면 수종·가공수법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곽)을 세우기 위해 기둥을 세운 흔적이 묘광의 긴 벽 바닥면에 4개 또는 6개가 확인되었는데, 기둥흔적은 묘광 바닥면에 원형으로 된 것과 묘광 벽에 홈을 낸 것의 2가지 형태가 있다.



[W72호 합장묘 전경]

(2) 유물 부장위치

유물 부장은 토기의 경우 한쪽 단벽쪽에 치우쳐 있는 경우와 관 위에 부장한 경우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별히 부장공간을 마련하여 유물을 부장한 경우는 없다. 철기는 대체로 한쪽 단벽쪽 또는 묘광 모서리부분에 바로 인접하여 부장하였고, 환두대도는 관 내부 바닥면 중앙쯤에 부장하였으며, 손잡이 부분에 쇠손칼을 함께 부장한 경우도 있다(S-28호). 구슬은 관 내부 중앙부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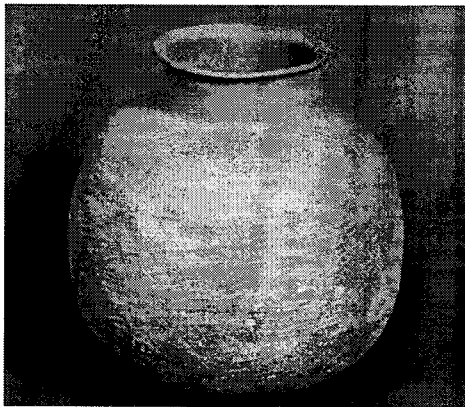
[S28호 환두대도 출토모습]

(3) 유물 조합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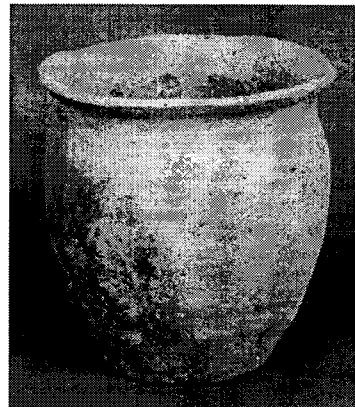
① 토기

토기의 경우 중서부지방의 원삼국시대 토광묘 기본 부장상인 원저단경

호와 발형토기가 금릉동유적에서도 기본 조합상을 이루고 있어 공통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물 부장은 원저단경호·발형토기를 각각 1점씩 관 밖 단벽쪽에 서로 인접하여 부장한 것이 기본이다. 출토 토기를 기종별로 보면 원저단경호·발형토기가 거의 대부분이며, 이중구연호·말모양 손잡이달린 토기·슬립 후 동심원을 돌린 토기뚜껑·옹 등이 각각 1점씩 나와 기종구성은 단순한 편이다.



[원저단경호]



[심발형토기]

② 철기

철기는 쇠도끼가 일반적으로 부장되었고, 농공구류의 부장 빈도가 높고 마구류의 부장 빈도는 매우 낮다. 마구류는 능선 정상부의 대형급 토광묘와 합장묘의 3기에서만 확인되었다. 유물상은 농공구류로 쇠도끼, 쇠낫, 쇠끌, 쇠손칼 등이고, 무기류는 환두대도, 쇠창, 쇠화살촉 등이 출토되었다.

③ 청동기

청동기류로는 마형대구가 있는데, 5기의 토광묘에서 모두 11점이 출토되었다. 마형대구 출토 토광묘는 능선 사면의 정상부 가까이에 분포하며, 묘광 규모는 소형·중형·대형 등 다양하다.

④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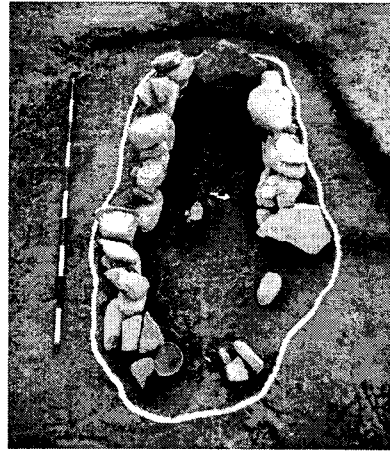
그 밖의 출토유물로는 숫돌과 구슬이 있으며, W-28호의 남쪽 단벽쪽에서는 바구니 흔적이 확인되었다.

4) 삼국시대의 유구

삼국시대의 유구는 석곽 1기가 조사되었다. 파괴가 심하여 석축이 많이 유실된 상태로 동·북벽은 1단, 남벽은 1~3단 정도만 남아 있으며, 깎돌과 길죽한 강자갈들을 함께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석곽 바닥면에는 15cm쯤 위에 길이 20~40cm·두께 3~6cm의 깎돌과 일부 편평한 강자갈들을 깔았다. 석곽 축조상태와 주변지역 조사유구와 비교하여 볼 때 6~7세기경의 신라시대 석곽묘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없다.

5) 고려시대의 유구·유물

고려시대의 유구는 동사면 하단부의 비교적 급한 경사면을 이루는 곳(해발 58m)에서 석곽묘 2기가 조사되었다. 유구 길이방향은 등고선방향과 직교하며, 현재 석곽 벽석은 1~4단 정도가 남아 있다. 유물은 청자대접·녹청자대접·토기병·관고리·관못 등이 출토되었는데, 청자는 14세기경 지방가마에서 구운 것으로 판단되어 석곽묘 축조는 이 시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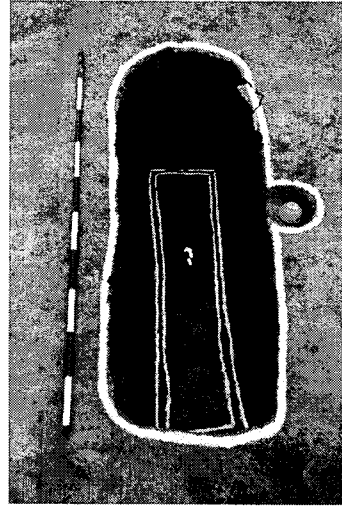


[E40호 유구전경]

6) 조선시대의 유구·유물

모두 54기의 토광묘가 조사되었으며, 유형별로 보면 합장묘 2기, 회곽묘 2기, 목관묘 24기, 순수 토광묘 26기 등이다. 이 중 감실구조를 갖춘 것이 1기(S-66호)가 있는데, 감실은 묘광 동벽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약간 치우쳐 설치되어 있으며, 감실 안에 백자종지와 백자발을 포개어 얹어 놓은 상태로 출토되었다.

조선시대 토광묘 출토유물은 백자발 1·백자종지 1·청동손가락 5·상평통보 1·철제 가위 1·구슬 10·관뭇 등이 출토되었으며, 17세기 이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S66호 유구]

VI. 발굴조사의 의미와 연구방향

충주 금릉동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고고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이 유적은 구석기, 초기철기, 원삼국, 삼국, 고려, 조선시대에 걸친 유구가 조사되어 시대 폭이 매우 큰 특징을 보이며, 구석기(고토양층)를 제외한 시대의 유구는 모두 매장유구만이 존재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둘째, 고토양층은 능선 서사면부 중·하단부에 잘 발달되어 있으며, 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2개층의 석기 출토층을 확인하였다. 유물은 몸돌·격지 등 7점만이 출토되어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이나, 이 지역에서는 처음 조사되어 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흙자귀 제작과정을 복원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었다.

안산암제의 많은 석기제작 관련 유물들(흙자귀·몸돌·격지·부스러기·덜된연모 등)이 수습되어, 앞으로 이들 자료를 분석하면 흙자귀 제작과정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초기철기시대 유구는 2기가 조사되었으나 중원지방에서는 거의 조사되지 않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나는 흑도장경호가 출토된 세장한

형태의 토광묘이며, 다른 하나는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원형 수혈유구로서, 모두 능선 정상부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다섯째, 매장유구는 모두 211기가 조사되었는데, 이 중 72%(152기)가 원삼국시대의 토광묘이어서 이 시기의 대규모 집단묘역으로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확보된 자료는 중서부지방의 청주 송절동·봉명동·신봉동, 청원 송대리, 원주 법천리, 공주 하봉리, 천안 청당동유적 등과 비교되며, 이 시기의 매장문화를 밝힐 수 있는 고고학 자료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섯째, 가장 많은 수가 조사된 원삼국시대의 토광묘는 무덤조성에 특정방향, 특정부분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유구는 때를 이루며 분포하고 있으나 서로 중복된 유구가 없고, 이 시기 중서부지방에서 확인되고 있는 주구가 마련된 유구가 없는 것이 한 특징을 이룬다. 특히 토광묘의 조성은 능선 정상부에서 사면부로 내려가면서 일정한 구획성을 띠고 등고선을 따라 열을 이루며 조성되어 있고, 묘광 규모는 정상부로 갈수록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계층성·공간성 및 유물부장양상 등의 분석을 통한 당시의 매장형태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구 조성시기는 출토유물상을 통하여 볼 때 3세기 후반~4세기 전반대로 가늠된다.

일곱째, 출토유물은 구석기와 흑도장경호·원형점토대토기·원저단경호·발형토기·옹 등의 토기류, 청동기로는 마형대구, 석기로는 숫돌, 철기류로는 환두대도·쇠창·쇠끌·쇠도끼·쇠화살촉·마구 등, 장신구류로 구슬, 자기류로 청자·녹청자·백자 등 800여점이 출토되었다.

앞으로 이들 유물을 보다 정밀하게 분류·분석하면 유구유형과 함께 이 시기의 문화발달단계를 규명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릉동유적의 고토양층과 다양한 출토유물(토기·철기·청동기·관재(棺材)·숫 등)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진전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